

사업 넓히고... 접근성 높이고... 먹거리 개척 나선 2금융권

카드업계, 중저업 허용 등 건의
보험업계, 금융소비자 소통 강화
펫보험 등 미니보험 활성화 기대



카드 및 보험업계가 신사업 확대 등 새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유투이미지

카드 및 보험업계가 신사업 확대 등 새 먹거리 창출에 나서고 있다. 새로운 사업 영역을 확대하고, 소비자 접근성을 높여 이익 증대를 꾀하기 위해서다.

◆카드업계, 오랜 숙원 해소될까

11일 카드업계에 따르면 최근 여신금융협회는 ▲종합지급결제업(중지업) 허용 ▲빅테크와의 공정경쟁 ▲카드수수료 체계 개편 등을 담은 정책 개선 건의사항을 인수위에 제출했다. 아직 구체적으로 진행 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정권이 바뀐 상황에서 카드업계에 해당 내용의 필요성을 전달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특히카드업계에서 기대하고 있는 정책 개선은 '종합지급결제사업자'(중지사)다. 지난 2020년 빅테크에 대한 규제

방안을 담은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된 바 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중지사 제도의 도입이다.

카드업계에 중지사가 도입되면 현재 은행만 개설할 수 있는 결제계좌를 카드사에서 직접 발급·관리할 수 있고 ▲급여이체 ▲카드대금 및 보험료 납부 등의 계좌 기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즉, 은행과 거의 비슷한 여수신 업무가 가능해지게 되는 것.

최초로 전금법 개정안이 발의됐을 당시 금융사가 허가받기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있었지만 여러 개정안을 거치며 금융사의 진입 장벽이 대부분 해소됐다는 평가다.

다양한 사업 확대가 가능한 만큼 카

드업계에서도 기대하고 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금융당국에서도 해당 내용을 수락한 상황이고, 전금법 개정안 문구 자체도 여러 버전을 거쳐지면서 진입 장벽이 없는 걸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보험업계, 소비자 소통 강화

보험업계에서는 금융 소비자와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총력을 다할 것으로 예상된다.

올해 초 생명·손해보험협회는 신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각각 종합생활금융 플랫폼 기반 마련과 소비자 친화적 보험서비스 제공 등을 신년 사업계획으로 꼽은 바 있다.

먼저 생보협회는 오픈뱅킹 가입 및 마이페이먼트, 후불결제 등이 가능하도록 제도개선을 지원한다. 금융 소비자가 플랫폼(앱)을 통해 헬스케어, 의료비용(본인부담금) 등 결제를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다. 손보협회는 보험가입과 생활 속 편의서비스를 보험사의

플랫폼에서 윈스톱으로 동시에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서비스 도입을 검토한다.

여기에 윤석열 대통령도 국정과제 110대 공약 중 하나로 '맞춤형 펫보험 활성화'를 제시한 만큼 펫보험을 포함한 미니보험 시장에도 활기가 불 전망이다.

펫보험만 보더라도 최근 삼성화재는 관련 부서 인원을 충원하고, 현대해상은 다이렉트 채널을 통한 판매를 검토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본격적으로 펫보험 시장이 판을 키워가고 있다는 시각이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국정과제로 나온 만큼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게 되면 아무래도 펫보험을 포함한 미니보험 시장이 활성화될 가능성도 높아질 것"이라며 "최근 빅테크 기업이 보험산업에 진출한 점도 미니보험 시장 활성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백지연 기자 wldus0248@metroseoul.co.kr

떠나는 이동걸... 차기 산은회장 하마평 무성

윤창현·최수현·강석훈 등 거론
부산이전 추진 가능 인물 1순위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이 물러나면서 차기 회장 하마평이 무성하다. 업계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인 산업은행 부산 이전 뜻을 이행 할 인물이 내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11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은 지난 9일 이임식을 열고 4년 8개월의 임기를 마무리했다.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2017년 산은 회장에 취임한 이 회장은 지난해 연임에 성공했지만 잔여 임기가 1년 5개월 남짓인 시점에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사의를 표명했다. 이에 따라 차기 회장이 임명되기 전까지 최태원 수석부회장 체제로 운영된다.

금융권의 관심은 차기 산은 회장에 쏠려 있다. 새로운 정부와 발을 맞춰야 하고 현재 반대가 심한 부산 이전을 추진해야 하기 때문이다.

차기 산은 회장 후보로는 자천타천으로 4~5명이 거론되고 있다.

먼저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이자, 윤 의원은 서울시립대 교수와 금융연구원장, 공적자금관리위원회 민간위원장을 거친 후 지난 2020년 정계에 발을 디뎠다. 미국 시카고대 대학원 경제학 박사 출신으로 금융 분야를 전공했다는 점이 강점이다.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어서 의원직을 내려놔야 한다는 한계도 있다.

최수현 전 금융감독원장도 차기 산은 회장으로 거론된다. 최 전 원장은 행정고시(2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재정부

(현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장을 거쳤다. 금감원장 재임때 일어났던 '동양사태', 'KB사태' 등이 걸림돌이다.

강석훈 전 청와대 경제수석도 차기 회장 후보로 주목받고 있다. 강 전 수석은 제19대 국회의원과 박근혜정부 경제수석을 지내면서 경제정책에 강점이 있다는 평가다.

이밖에도 황영기 전 금융투자협회장 등도 차기 산은 회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산은 부산이전이 윤석열 당선인의 주요 공약이었던 만큼 산은 이전을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깜짝' 인사가 낙점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되고 있다.

차기 산은 회장이 정해지기까지는 다



산업은행 본사 전경. /산업은행

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산은 회장은 금융위원장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로 차기 금융위원장이 결정돼야 정확한 방향을 알 수 있다. 지난 5일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사의를 표명했기 때문에 차기 금융위원장이 결정된 후 산은회장이 결정될 전망이다.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하는 금융위

원장으로는 관료 출신이 유력하다.

금융권 관계자는 "차기 회장 하마평이 나오고 있지만 금융위원장 인선 등이 마무리 되면 윤곽이 잡힐 것"이라며 "다소 시간이 걸리겠지만 부산이전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선택해야 하는 점에서 새 정부도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은행 가계대출 잔액 1060조 4개월 만에 증가세 전환

은행 가계대출이 4개월 만에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지속된 가운데 기타대출 감소폭이 축소되면서다.

한국은행이 11일 발표한 '2022년 4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1060조2000억원으로 증가 전환했다. 전월 대비 1조2000억원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 증가세가 이어지며 기타대출이 줄어든 영향을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은 2조1000억원으로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주택매매거래 둔화에도 전세 및 집 단 대출 관련 자금 수요 지속 등에 따라다. 기타대출 잔액의 감소폭도 전월 3조1000억원에서 9000억원으로 축소됐다. /백지연 기자

우리금융, 기업 최초 'B4L 이니셔티브' 출범 참여

향후 기후위기 대응·산림교육 실시

우리금융그룹은 지난 10일 지속가능한 산림 보호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한 비즈니스 포 랜드(Business for Land) 이니셔티브(B4L 이니셔티브) 출범에 공식 지지 선언을 했다고 11일 밝혔다.

B4L 이니셔티브 출범은 오는 20일까지 아프리카 코트디부아르 아비장(Abidjan)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15차 유엔 사막화방지협약 당사국총회의 유엔 사막화방지협약(UNCCD) 그린 비즈니스 포럼에서 진행됐다.

UNCCD는 세계 사막화 방지 및 토지 황폐화 개선을 위한 국제적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1994년에 채택된 협약으로 기후변화협약, 생물다양성협약과 함께 유엔의 3대 환경협약 중 하나다.



우리금융그룹 손태승 회장이 지난 10일 코트디부아르 아비장에서 열린 유엔사막화협약(UNCCD) 당사국총회(COP15)의 'Business for Land' 출범에 비대면으로 참여하고 있다. /우리금융

B4L 이니셔티브는 토지 황폐화 방지를 위해 기업이 참여하는 파트너십 구축의 필요성을 대한민국 산림청이 UNCCD 사무국에 제안했고 그 결과 이번 총회에서 공식 출범하게 됐다.

손태승 회장은 이번 행사에 비대면 영상 메시지를 통해 참여하고 B4L 이니셔티브 출범을 공식 지지했다.

손 회장은 영상 메시지에서 "향후 UNCCD와 협력해 기후변화와 산불피해 등으로 훼손된 지역에 '생명의 숲' 조성 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자연기반 해법으로 주목받고 있는 레드플러스(REDD+) 참여, 전세계 학생들에게 기후위기 대응·산림교육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신한베트남은행 1530억 규모 현지채권 발행

신한은행은 신한베트남 은행이 2조 8000억동(1530억원) 규모의 베트남 현지 채권을 발행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발행 채권은 신한베트남은행 진출 29년만의 첫 현지통화 채권이며 베트남에 진출한 외국계 은행 중 2번째 발행이다. 발행금리 4.0%의 2년 만기물 채권이다. 베트남 4대 국유은행의 1년 정기예금 평균금리가 5.5% 이상인 점을 감안 시 저금리로 안정적인 장기자금을 조달했다는 시장의 평가다.

신한베트남은행 관계자는 "글로벌 금융시장의 변동성 확대에 대비하기 위해 채권을 발행했다"며 "증가하는 현지 고객들의 다양한 금융 수요에 선제적 대응 차원에서 추가 발행도 고려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